제 1 교시

국어 영역

홀수형

총평

[시험지에 대한 총평]

저는 다 푸는데 정확히 79분이 걸렸습니다 (화작 기준)
화법과 작문에 11분을 사용했구요, 저는 비문학을 먼저 풀었는데 비문학에 39분을 사용했네요. 문학 풀이에 거의 28분 정도를 썼습니다. 다행히 틀린 문제는 없습니다 휴... 저도 풀면서 굉장히 빡빡하다고 생각을 했던 시험지였구요. 1등급 컷은 87~89 선에서 형성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해설은 굉장히 심플하게 작성했습니다. "실전적" 으로 해설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해설에 오류가 있으면 지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실제로 80분을 재고 풀면서 진행했던 생각들, 근거들을 위주로 잡은 해설지입니다. <정답> 선지만 해설해놨습니다.

★부여는 지극히 주관적인 의견입니다.

[1번 문제] ⑤ ★☆☆☆☆
정서적 반응을 기준으로 평가한다는 말은 지문에 나와있지 않습니다.

[2번 문제] ① ★★☆☆☆
<보기>에서 기록의 궁극적 목적은 "마음속의 생각을 다 드러냄" 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3번 문제] ③ ★☆☆☆☆
풀이 생략하겠습니다.

[4번 문제] ③ ★★★☆☆
인과에 대한 특정 이론 (과정이론)을 정의한 뒤 구체적인 사례(규범, 마음)을 통해 이론의 한계는 드러냈으나, 과정이론의 전망은 나오지 않습니다.

[5번 문제] ④ ★☆☆☆☆
(나) 지문에 의하면 " 변화된 음양의 기를 통해 감응한 " 하늘이라고 나오네요. 하늘은 변화에 반응하는 존재입니다.

[6번 문제] ④ ★★★★☆
변화된 바나나 그림자의 모양이 표지로 도입되는 것은 과정 4와 과정 3이 교차했을 때입니다.

[7번 문제] ② ★★☆☆☆
기존에는 인간사를 원인으로 , 재이를 결과로 설명하는 개별적 대응 방식이었고, 예언화 경향은 인간사를 "결과" 로 설정했으므로 인과 관계를 역전시켰습니다. 그리고 재이를 "징조" 라는 표현을 사용했죠.

[8번 문제] ② ★★★☆☆
하늘과 인간이 감응하는 것이 "물리적" 이지는 않습니다.

[9번 문제] ① ★☆☆☆☆
해설 생략합니다.

[10번 문제] ③ ★★☆☆☆
개개인이 자유를 할애하고, 그것을 누군가가 위탁받아 관리하는 것이지 모든 개개인이 형벌을 시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11번 문제] ⑤ ★★☆☆☆
"공익을 훼손한 정도에 비례해야하고, 그것을 넘어서는 처벌은 불필요하다."

[12번 문제] ④ ★★★☆☆
가장 큰 가치 = 생명, "희생한 자유에는 생명이 포함될 수 없다"
사회 계약론 = 인간들 사이의 합의
✓ 생명을 희생할 수 없다, 고로 사형 제도 비판

[13번 문제] ② ★☆☆☆☆
해설 생략

[14번 문제] ① ★★★☆☆
주형 DNA에서 증폭하고자 하는 부위를 표적 DNA라 하고, 프라이머는 표적 DNA의 일부분과 "동일한" 염기 서열로 이루어진 짧은 단일 가닥 DNA입니다. 그렇기에 일치하는 염기 서열을 주형 DNA 안의 표적 DNA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개념에 대한 정의를 문항으로 활용했네요. 2021학년도 9월 모의평가 풀이를 진행할 때, 모방론자가 비판할 때 "자연에 대한 모방" 이 정의였다고 강조했던 기억이 나네요. 기출 분석 합시다!

[15번 문제] ② ★★☆☆☆
㉠은 DNA에 결합하여 발색하는 것이고 ㉡은 탐침이 "분리" 된 후 발색이 진행되죠.

[16번 문제] ④ ★★★☆☆
1문단에 PCR은 "염기 서열을 아는 DNA가 한 분자라도 있으면 이를 다량으로 증폭할 수 있는 것" 이네요. 염기 서열이 있어야 진행할 수 있는 반응입니다.

[17번 문제] ② ★★★★★
1번을 많이 고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Ct 시간의 정의는 "발색도에 도달하는 싸이클" 입니다. 도달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기준" 이 있다는 소리겠죠. 그렇기에 발색도는 하나의 "기준" 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에서 발색도는 같아야 합니다.
PCR은 기본적으로 "다량으로 증폭하는 것이고" DNA 초기 양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 ⓑ 보다 농도가 높았다면 초기 양이 ⓐ가 더 크므로 Ct값은 ⓐ가 더 작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발색도는 하나의 "기준" 이고 이 "기준" 에 도달하는 시간에서 ⓐ와 ⓑ가 차이가 나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18번 문제] ② ★★☆☆☆
"나" 라는 내부의 서술자가 인물(기범)에 대해서 관념적(추상적)으로 서술하고 있다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관념적" 이라는 말은 2021학년도 9월 모의평가 만흥을 학습할 때 충분히 설명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모르시겠으면 다시 질문 주세요.

[19번 문제] ④ ★☆☆☆☆
기범과 누가 사라지겠다는 "약속" 을 하고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20번 문제] ① ★★☆☆☆
ⓐ를 듣고 나서 "나" 는 "나는 그것이 기범을 이해하는 어떤 열쇠가 아닌가 생각했다." 와 "그제야 언뜻 한 가닥의 질서 위에 어렴풋이 늘어서는 것이었다." 라는 대목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21번 문제] ⑤ ★★★☆☆
<보기>에 의하면 "성취감을 느끼기도 하지만, 그 상대로부터 외면받거나 그가 부재한 상황에서는 마음에 상처를 입는다." 라고 서술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즉 "성취감 ↔ 마음의 상처" 로 설정할 수 있겠죠. "사람만이 지닌 이상한 초능력" 에 대한 언급은 일규가 죽고 난 후 기범이 깊은 산골에 왔을 때의 행적을 보고 평가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만이 지닌 이상한 초능력" 은 마음의 상처로 인해 합리화하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다.

[22번 문제] ⑤ ★★★☆☆
(가)에서는 "봄", (나)에서는 "추풍" 이 등장합니다.

[23번 문제] ③ ★☆☆☆☆
"자연물에 대한 연민" 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24번 문제] ④ ★★☆☆☆
" 푹 박혀 있자는 것도 말처럼 쉽사리 되는 것은 아니라~~, 속에서 울화가 터져 나온다." >> 마음의 안정을 찾지 않습니다.

[25번 문제] ① ★★☆☆☆
(가)에서는 제1곡에서 도연명 죽고 연명이 났다. 이름이 서로 같고, "돌아와 수졸전원이야 그와 내가 다르랴" 라는 설의법을 제시하네요 설의법은 쉽게 판단할 수 있는 질문을 굳이 물어보는 것이죠? 결국 그와 내가 같다라는 소리입니다.
(나)에서는 "청담을 일삼던 그네의 심경을 한때는 욕을 한 적도 있었으나, 막상 나 자신이 그 심경에 처해 있고 보니 불우한 그 심정을 넉넉히 동감하게 된다." >> 이 대목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6번 문제] ③ ★★☆☆☆
[A]에서 무거운 것을 생각하며 끌어 올리지만 방게, 개구리를 보고 실망하고 있고, [B]에서는 "하다 못해 붕어 새끼쯤이야 안 물리랴 하는 판에 얼토당토 않은 구역질 나는 놈들이 내 마음을 더럽힌다" 라는 대목을 통해 한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7번 문제] ② ★★★☆☆
<율리유곡>의 화자는 양쪽 모두에 미련을 버리지 못한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속세>를 엄청 떠나고 싶어하는 화자입니다. 연계 공부를 하신 분들이라면 잘 아셨을 것입니다. 모른다는 전제 하에 풀이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주가" 는 정확히는 우리가 모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화자" 가 찾아가려는 대상입니다. 온 골이 살구꽃이 만발해 있어 긍정적인 공간으로 볼 수 있지만, 주가와 대비되는 공간이라고 한다면 "주가" 라는 공간은 부정적인 속성을 가진 공간이어야 하는데 그런 공간을 화자가 "찾아" 가나요? 아닙니다. 대비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양쪽 모두에 미련을 버리지 못한 화자의 상황도 아닙니다.

[28번 문제] ① ★☆☆☆☆
감사가 송이를 걱정하는 대목은 (중략)이후 "사람이 늙어지면~~" 대목부터입니다. 그 때 송이는 필성을 그리워 하는 마음에 흐느껴 운 것이죠. "부모의 소식으로 애태우다" 가 아닙니다.

[29번 문제] ③ ★★☆☆☆
ⓐ를 통해 필성의 글씨임을 알아 차리고 감사에게 물어봐 필성이 이 방으로 와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는 "상사가 생각 되고 생각이 노래 되고 노래가 글이 되어 붓끝을 따라 나오니 붓대가 쉴 새 없이 쓴다." 라는 대목으로 봐서 "상사가 생각이 나서" 쓴 것이다.

[30번 문제] ① ★★☆☆☆
"달" 은 송이에게 쓸쓸한 심회를 돕는 것으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송이는 "달" 에게 신세를 한탄하며 원망하고 있다고 봐야겠죠.

[31번 문제] ③ ★★☆☆☆
변화에 송이가 주목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송이가 공청의 일을 돕게 되기까지의 과정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32번 문제] ④ ★☆☆☆☆
(가)에서 "무너지는 꽃 이파리처럼", (나)에서 "아득한 나락으로 떨어져 내리는"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33번 문제] ⑤ ★★☆☆☆
일단 (나)에서 화자는 "플라스틱 물건처럼 느껴질 때" 뛰어내리고 싶다고 합니다. 감상적으로는 플라스틱처럼 화자가 "느끼고" 있기 때문에 차별성이 아닙니다. 또 형식적으로 가자면 "~처럼" 이라는 비유적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비유적 표현은 원관념을 보조관념으로 나타내는 것이지요. 원관념 = 나, 보조관념 = 플라스틱으로 놓으면 차별성이 부각되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동질성으로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34번 문제] ② ★★★★☆
"주름 잡히는 연륜" 에 결핍되어 있는 속성은 오히려 화자가 추구해야하는 속성이죠. 화자가 끊어야할 대상인 속성이 아닙니다. 불꽃처럼 살면서 그 속성을 "실현" 시키고 싶어 하는 것으로 해석가능하지 않을까요.

다들 고생많으셨습니다.